■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37-467.
http://doi.org/10.17948/kcs.2023..98.437

천도교인 차상찬의 역사인식*
—『별건곤』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조형열(趙亨烈)**

목 차

1. 머리말
2. 조선후기 혼란상과 저항·반란 소재 역사서술
3. 후천개벽을 향한 인간 실천 중심적 역사인식
4. 현재적 교훈의 강조와 동요하는 역사성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차상찬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을 천도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차상찬이 쓴 역사 기사는 주로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지배권력에 저항했던 개혁적 인물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천도교 계열 지식인이 이징옥, 이괄, 임경업, 홍경래 등을 중요하게 거론하고, 동학의 창도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면서 '동학란'을 민중운동이자 개혁운동으로 높게 평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차상찬의 역사인식은 첫째, 천도교의 교리와 정치·문화운동론으로서 후천개벽을 중요한 목표로 내면에 깔고 있었으며, 둘째, 인간의 실천으로 역사가 진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실천적 역사인식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적 교훈을 강조하는 태도와 선천 시기 역사 변화와 역량의 축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천도교 역사관의 영향으로 역사성이 동요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주제어: 차상찬, 천도교, 후천개벽, 인간 실천 중심적 역사인식, 현재적 교훈, 역사성의 동요.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조교수.

1. 머리말

차상찬(車相瓚, 1887-1946)은 천도교인이다. 1904년 입교하여 천도교가 운영하던 보성전문학교 강사를 하다가 1920년대부터 교단에서 활동했다. 천도교청년당 중앙위원·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조선농민사 부이사장을 지냈다. 1932년에는 인내천주의 문화 수립을 위한 연구 목적의 특종위원회(학술연구위원회로 변경)에 참여했다. 교단의 직책은 1934년까지 확인된다.[1)]

천도교단에 몸담으면서 그가 주로 활약했던 무대는 개벽사였다. 개벽사는 1919년 9월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의 편술부 사업으로 첫발을 내딛었다.[2)] 개벽사에 미친 천도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1920년 이후 천도교 내부의 동향이 복잡하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벽사와 천도교의 관계가 끊어진 적도 없다. 그리고 차상찬은 실질적으로 1935년 무렵까지 개벽사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3)]

차상찬이 남긴 글은 아직까지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관심 분야도 넓어서 현재와 과거, 한반도와 세계를 넘나들었다. 그는 역사서술, 특히 조선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깊었다. 이러한 면모는 현재까지 출간된 『차상찬 전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유고(遺稿)를 포함하여 그가 저자로 기록된 세 권의 단행본이 모두 역사서라는 점도 근거가 될 것이다.[4)] 그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서술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개벽사 발행 잡지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 자기가 쓴 역사를 읽어달라고 독자에게

---

1) 성주현, 「청오 차상찬과 천도교」, 강원문화교육연구소 기획, 『차상찬 연구—일제강점기 문화운동의 선구자』,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20, 39-52면.

2) 정용서,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145면.

3) 차상찬의 개벽사 활동에 대해서는 정용서의 앞의 논문과 정현숙, 「개벽사와 차상찬—기획 특집과 매체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 참조,

4) 차상찬 이름으로 나온 단행본 세 권은 아래와 같다. 차상찬, 『통속 조선사천년비사』, 북성당서점, 1934; 차상찬, 『해동염사』,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차상찬, 『조선사외사 제1권 제도·풍속 편』, 명성사, 1947. 『통속 조선사천년비사』에는 엄태웅이 정리한 바와 같이 차상찬이 쓰지 않은 여러 저자의 글도 포함되었다. 엄태웅, 「차상찬의 『통속조선사천년비사』 편찬의식 고찰」, 『고전과 해석』 35,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1, 187-194면.

말을 건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5]

역사서술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대와 다른 과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의 취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다. 그런데도 차상찬은 20년 동안 이를 꾸준히 수행했으며, 여기에는 당연히 특정한 관점과 방법이 반영되었다. 차상찬의 역사서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쌓인 것은 아니지만, 몇 편의 선행연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점에 집중했다.

송민호는 『별건곤』 발행과정에 내포된 차상찬의 생각을 읽어내고자 했다. 취미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설정한 뒤 조선문화에 대한 담론 구축의 일환으로 야사(野史)에 기반한 역사담, 즉 야담(野談)에 주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담에 대한 착목을 역사지식을 축적하는가 하면, 대중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이중의 목적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야담을 통해 차상찬이 독특한 기사 쓰기 유형을 창출했다고 본 것이며, 이 가운데 역사는 '박물학적 지식이 담긴 근대적 읽을거리'로 이해되었다.[6]

정다연은 차상찬의 역사서술 자체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별건곤』에 수록된 기사를 중세사와 근세사(이상 901-1832년), 근대사(1833년-1945년)로 구분・검토하면서, 차상찬이 전자를 통해서 저항적 인물 및 사건을 불러오고, 특히 후자의 영역에서 많은 글을 할애하며 현실 개조를 지향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술 방식과 관련해서도 각색된 대화체 등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을 추구했고 이를 '역사의 대중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7]

엄태웅은 『통속 조선사천년비사』의 편찬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차상찬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한 단계 논의를 심화시켰다. 차상찬이 역사 기술을 선택과 배제라는 가치판단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엄격한 역사적 고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민족과 민중에 대한 관심을 환기

---

5) 평생에 걸쳐 쓴 글 목록 작업이 마무리 된다면, 그의 생애에서 역사서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길수의 평전에 제시되어 있는 목록만 하더라도 불완전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박길수, 『차상찬 평전』,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2 참조.

6) 송민호, 「식민지 조선의 문화기획자 차상찬」, 『차상찬 연구—일제강점기 문화운동의 선구자』,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20, 206-213면.

7) 정다연, 「『별건곤』 소재 차상찬 역사서술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9.

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썼다고 보았다.[8] 최배은은 차상찬이 어린이 잡지에 쓴 역사 기사를 살펴 구국영웅의 용맹한 행적을 소재로 삼았음을, 강미정은 『해동염사』 분석을 통해 자주적 여성 주체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았다.[9]

송민호가 잡지 기사 생산의 맥락에서 역사 내용이 접합되었다고 봤다면, 정다연은 저항적·개혁적 역사인식 단계와 대중적 기사화 단계로 인식과 서술의 층위를 분리했다. 엄태웅·최배은·강미정은 민족·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기사·서사 형태를 취하며 역사를 다시 쓰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같은 대상을 다루면서도 잡지 기사로서, 역사서술로서 각각 주목하는 바가 달랐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만큼 차상찬은 해석의 폭이 넓은 '텍스트'이다.

이 글은 차상찬의 역사인식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내용(역사인식)과 형식(서술형태)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차상찬이 쓴 역사의 주제와 역사를 구성하는 방식에 집중하기 위해 역사인식 측면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을 썼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했는지, 차상찬이 역사를 서술한 의도는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무엇보다 천도교인이라는 정체성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차상찬의 사고체계를 지배했던 천도교에 대한 고려 없이 그의 역사쓰기를 조선문화 기획, 민족·민중 주체의 기획 등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근대 역사인식의 갈래를 지나치게 평면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글은 일제하 천도교 계열 지식인의 역사인식에 대한 검토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10]

이 글의 분석 대상은 1926년부터 1934년까지 차상찬이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별건곤』의 지면에 수록된 차상찬의 역사 관련 기사이다. 『개벽』에는

---

8) 엄태웅, 앞의 글, 181-186면.

9) 강미정, 「『해동염사』의 내용과 특성」, 『한국어문교육』 34,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1; 최배은, 「차상찬의 '어린이 역사 이야기'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7,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10) 천도교의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동학사(東學史)' 서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홍동현, 「1900-1910년대 동학교단 세력의 '東學亂'에 대한 인식과 교단사 편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김정인, 「천도교 계파의 동학사 인식—오지영의 『동학사』와 이돈화의 『천도교창건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그러나 동학의 창도 이후 동학사가 검토되었을 뿐, 천도교 계열 지식인의 조선의 역사 전반에 대한 조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조선문화 기본조사'와 관련한 글을 주로 집필했고, 역사서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무대가 『별건곤』이기 때문이다. 개벽사 잡지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1930년대 후반 『조광』에 글을 쓰던 시기를 분리할 필요도 있다.[11]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할 것이다. 첫째, 차상찬이 『별건곤』에 썼던 역사 기사의 소재를 검토하여 그의 역사서술이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어떠한 주제의식을 내면에 깔고 있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천도교 계열 지식인의 조선사 서술 작업들과 비교하면서 역사인식의 특징을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현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역사해석에서 미치는 영향을 역사성의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조선후기 혼란상과 저항·반란 소재 역사서술

차상찬전집편찬위원회에 의해 조사된 『별건곤』 수록 차상찬의 글은 270여 편에 이른다.[12] 그리고 이 가운데 역사 관련 기사는 『전집』 4권과 5권에 걸쳐 77편이다. 민속으로 분류된 글도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 많지만, 77편이 직접적으로 과거를 서술 대상으로 삼은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차상찬이 어떠한 소재와 주제를 역사서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는지 이 기사들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다.

[표 1]은 차상찬의 역사 관련 기사를 『별건곤』 수록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요하게 보려고 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어떤 역사적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둘째, 어떠한 사건과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가. 셋째, 그 사건과 인물들은 주로 어떠한 활동과 관련되었나. 첫째와 둘째가 소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셋째가 차상찬이 역사서술의 주제로

11) 『별건곤』 발행 시기가 지면의 안정성, 검열의 환경 등에서 차상찬이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차상찬이 속했던 천도교 신파가 1934년을 기점으로 시중회의 조직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도 이 시기에 주목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298-313면; 정용서, 「1930년대 천도교세력의 정치운동론과 시중회 참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12) 차상찬전집편집위원회 편, 『차상찬 전집』 4,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2021 중 「서문」. 이하 『차상찬 전집』은 『전집』으로 표기한다. 『전집』을 제공해준 춘천문화원에 감사드린다.

삼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 『별건곤』에 수록된 차상찬의 역사 관련 기사 분석

	제목	권호/연도	기획 코너	시기	주제어
1	만고정충 임경업 장군	1-1/1926	과학소설・전기	17세기	병자호란, 임경업, 인조
2	이괄 원수의 갑자반란기	2-3/1927	사화・인물	17세기	이괄, 인조반정, 병자호란
3	독립협회의 비사	2-4/1927		19세기	독립협회, 황국협회
4	임경업 장군을 신임하얏드면	2-5/1927	드면록(錄)	17세기	병자호란, 임경업
5	반복무쌍의 간괴(奸傀) 정도전	2-6/1927	역대음험인물 토죄록	15세기	정도전
6	독기(도끼) 정승 원두표	2-8/1927	역대쾌인쾌거록	17세기	원두표, 인조반정, 이괄의 난 진압
7	동방이학자 서화담	3-1/1928	사외사(史外史) 기인기사록	16세기	서경덕, 황진이
8	근대예언가 남사고	3-1/1928	사외사 기인기사록	16세기	남사고
9	협사적 문호 임백호	3-1/1928	사외사 기인기사록	16세기	임제
10	희세 대술가 이토정	3-1/1928	사외사 기인기사록	16세기	이지함
11	불우시인 김삿갓	3-1/1928	사외사 기인기사록	19세기	김병연
12	양장군의 안시대첩	3-2・3 /1928	장절쾌절 조선역사상 3대전첩 (조선자랑특집)	7세기	양만춘, 연개소문, 안시대첩, 대당전투
13	녯날의 조선해군	3-2・3 /1928	(조선자랑특집)	통사	해군, 무예 숭상, 지리적 조건, 군함
14	최란헌사건의 전말	3-2・3 /1928	(조선자랑특집)	19세기	제너럴셔먼호사건, 신미양요, 조미관계
15	역대악단의 명인물	3-2・3 /1928	음악자랑 (조선자랑특집)	통사	
16	국제적으로 알녀진 조선인물	3-2・3 /1928	(조선자랑특집)	통사	명장, 명문장가, 명필, 명외교관
17	종(縱)으로 본 조선의 자랑	3-2・3 /1928	(조선자랑특집)	통사	국제상 지위, 무력, 문학, 발명, 미술, 외국인의 사표
18	자칭 대금 황제 이징옥	3-4/1928	역대반란자열전	15세기	이징옥, 북방개척
19	녹림 호걸 임거정	3-4/1928	역대반란자열전	16세기	임꺽정, 반(反)부호, 반양반계급
20	관북 호걸 이시애란	3-5/1928	조선3대내란기	15세기	이시애. 지역차별
21	임오군란의 회상기	3-5/1928	조선3대내란기	19세기	임오군란, 대원군, 민씨정부, 청국 간섭

22	갑오동학란비록	3-5/1928		19세기	동학란, 대원군, 김개남, 전봉준
23	조선의 당쟁	3-6・7 /1928		17세기 -18세기	당쟁
24	제일 먼저 한 사람	3-6・7 /1928		19세기	단발, 구미유학, 자동차, 양복, 자전차, 신식결혼, 과부재혼, 부인 상점, 재봉기계, 염색의복
25	칠십일 기사록	4-1/1929	기사신년사화	통사	정변, 국제관계, 문화, 천재지변
26	장희빈 애사(哀史)	4-1/1929	기사신년사화	17세기	장희빈, 숙종, 당쟁
27	이여송의 평양대전	4-2/1929	2월사건	16세기	이여송, 임진왜란, 조선지원
28	병신 2월 대정변기	4-2/1929	2월사화	19세기	을미사변, 친러파, 아관파천
29	평서대원수 홍경래 격문	4-2/1929	2월사화	19세기	홍경래의 난
30	고려 태조 건국 비사	4-3/1929	동방3대건국기	10세기	왕건
31	이태조 건국 실록	4-3/1929	동방3대건국기	14세기	이성계
32	일촌설(一寸舌)・일병필(一柄筆)로 신국가 창건! 위인 마사릭 대통령	4-3/1929	창도건국3대위인	서양 19세기	마사리크, 체코 민족운동
33	중도에 면사(免死) 영작(榮爵)	4-3/1929	절처봉생 죽엇든 생명이 살아난 실담집	16세기	장순손
34	사형장에서 갱생한 미인	4-3/1929	절처봉생 죽엇든 생명이 살아난 실담집	19세기	박순애(가명, 미인)
35	남이 장군의 청춘시대	4-4/1929	동서위인 청춘시대	15세기	남이, 유자광
36	정충신의 청춘시대	4-4/1929	동서위인 청춘시대	17세기	임진왜란, 정묘호란, 이괄의 난
37	신흥국의 신인물	4-4/1929		20세기	케말 파샤, 터키청년당
38	천하기인 먹쟉골 허생원	4-5/1929	통쾌무쌍 기인편	17세기	허생원, 이완, 북벌론
39	천하대기인 이토정 선생	4-5/1929	통쾌무쌍 기인편	16세기	이지함, 토정비결
40	난장이 명물남 이근	4-5/1929	통쾌무쌍 기인편	16세기	이근, 임진왜란
41	불우화가 최칠칠	4-5/1929	통쾌무쌍 기인편	18세기	최북
42	개성 명기 황진이	4-5/1929	통쾌무쌍 기인편	16세기	황진이, 서경덕
43	국도 이전의 경성	4-6/1929	경성사기	통사	경성

44	경성의 5백년사	4-6/1929	경성사기	15세기-19세기	이태조, 무학대사, 광해군, 이괄의난, 숙영정조, 대원군
45	요승 라스푸친 일대기	4-7/1929		서양 19세기	라스푸틴
46	세계사상 4천2백년간 경오록	5-1/1930		통사	
47	조선 역사일지 1월록	5-1/1930			
48	요승 라스푸친(2)	5-1/1930		서양 19세기	라스푸틴
49	조선 역사일지 2월록	5-2/1930			
50	알바니아 아메드쏘그 왕	5-3/1930	위인・난관・노력	서양 20세기	아메드 조그
51	조선 역사일지 3월록	5-3/1930			
52	역대위인의 결혼 기담(奇譚)	5-4/1930		통사	김춘추와 문희, 백제무왕과 선화공주, 남이 장군과 권씨부인, 이항복과 권씨부인
53	관동병란 치르던 이약이	5-4/1930		19세기	
54	인조반정의 이면사	5-4/1930	조선사화	17세기	광해군의 실정, 당쟁, 인조반정
55	태봉왕 궁예 비사	5-5/1930		10세기	궁예
56	조선 역사일지 4월 5월 6월록	5-5/1930			
57	조선신문잡지 연혁 급 발달사	5-6/1930		19세기 -20세기	
58	조선 역사일지 7월록	5-6/1930			
59	세계적 웅변가	5-10/1930		20세기	브리앙, 맥도널드, 로이드 조지, 로버트 라폴레트 시니어, 무솔리니
60	청국 의화단 대폭란	5-10/1930	세계약소민족 3대반란사	20세기	의화단 사건
61	신미년과 조선	6-1/1931		통사	조선의 내란, 조선의 문화, 국제관계, 재해, 인물
62	신미양요	6-1/1931	신미3대란 비사	19세기	신미양요
63	홍경래 신미 반란기	6-1/1931	신미3대란 비사	19세기	홍경래의 난
64	일청전쟁의 회고	6-9/1931		19세기	청일전쟁
65	살수대전기 조선 최초의 대전쟁	7-11/1932		7세기	살수대첩, 을지문덕
66	이징옥 반란기	8-1/1932	계유사화	15세기	이징옥, 북방개척

67	조선 자객 열전 삼국편	8-1/1932		-7세기	뉴유, 황창랑, 김천
68	조선 자객 열전(기2) 삼국・고려편	8-2/1933		-10세기	괴유(怪儒), 염장, 조영규
69	조선 자객 열전(기3) 조선편	8-3/1933		14세기-	
70	해상의 쾌인용사 안용복	8-7/1933		17세기	울릉도, 안용복
71	4천년 사외사 역대왕비・공주편	8-7/1933		통사	
72	4천년 사외사 역대왕비・공주편(속)	9-1/1934		통사	
73	4천년 사외사 태봉왕 궁예비사	9-2/1934		10세기	궁예
74	조선 각도의 별칭	9-2/1934		통사	
75	설화의 울릉도 비사	9-2/1934		17세기	울릉도, 안용복, 조선 영토
76	4천년 사외사 반정란(反正亂) 중 삼대여걸	9-3/1934		17세기	인조반정
77	임진란과 일본군	9-3/1934		16세기	임진왜란

먼저 대상 시기를 검토해보자. 특정 달에 있었던 역사 사건을 쓰는 역사일지 5편과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통사적 서술 12편을 제외한 60편 가운데 가장 많은 17편이 19세기 이후, 12편이 17세기, 16세기가 11편이었다. 그에 반해 14-15세기가 6편, 10세기가 3편, 7세기 이전이 3편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17편 가운데에는 동서양의 민족운동을 다룬 기사도 7편 포함되었다. 즉 조선의 역사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17세기, 16세기, 19세기 이후 순서였고, 14-15세기, 10세기, 7세기 이전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 한 가지는, 차상찬이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사를 본격적인 역사서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8-14세기의 통일신라-발해, 고려시대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선의 자랑'(12번-17번)과 같은 통사 속에서 대외항쟁이나 조선의 문화유산을 일부 인용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소재로 잡은 경우는 바로 아래에서 살펴볼 고구려 장수와 궁예・왕건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그리고 차상찬이 관심을 쏟은 시기는 고려 말과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14-15세기, 16-17세기와 19세기 이후였다. 16세기 이후를 다룬 글이 훨씬 더 많으므로, 그가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과거가 주로 조선후기 이후였다고

봐도 좋겠다. 그런데 조선후기 가운데 18세기 영·정조 집권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차상찬의 역사서술의 첫 번째 특징은 서술 대상 시기가 고대사와 조선 영·정조기를 제외한 조선후기 이후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시기에 대한 관심 가운데 어떠한 사건과 인물을 다루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7세기로부터 안시대첩·살수대첩이 소환되면서 양만춘, 연개소문, 을지문덕 등 장수들의 '위업'이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또한 10세기에 태봉을 이끈 궁예의 행적이 두 차례 소개되었는데 민중을 탄압하고 악행을 저지른 궁예의 권력 피탈 과정을 왕건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설명한 것이다.

> 장군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등이 혁명의 음모를 하고 밤중에 왕건의 사택에 가서 말하야 왈 지금 주상이 무도란폭하야 신민을 함부로 죽이고 생민이 도탄 속에 드린지라. 자고로 어둔 임금을 폐하고 밝은 임군을 세우는 것은 천하의 대의니 공은 녯날 탕무의 일을 행하라 하니 왕건은 처음에 사양하다가 그의 부인 류씨의 강권으로 결국 혁명의 깃발을 들고 여러 장군을 선두로 하야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궁성문 압흐로 돌진하니 일반인민이 또한 향응하야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얏다.[13]

차상찬은 암군(暗君) 대신 명군(明君)이 즉위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가치 기준에 따라 왕건의 '혁명'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인용문의 뒷부분에서 왕건이 고려 건국 이후 「훈요십조」에서 거란을 배척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거란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으로 이끈 데 대한, 왕건의 민족관념의 표출로 본 것이다. 나아가 차상찬은 "신라가 당과 연합하야 고구려를 공멸한 것은 이 왕건 태조에 비하야 얼마나 졸렬한 정책인지 알 수 업다"고 비판했다.[14] 이렇듯 조선시대 이전을 단독으로 다룬 글은 고구려의 저항 정신, 고구려 발해의 계승자로서 고려 등을 주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었다.

한편 14-15세기 가운데는 태조 이성계, 정도전, 이징옥(李澄玉), 이시애

13) 수춘산인, 「4천년 사외사 태봉왕 궁예 비사」, 『별건곤』 9-2, 1934.2.(『전집』 5, 299면)
14) 수춘학인, 「고려태조 건국비사」. 『별건곤』 4-3, 1929.4.(『전집』 4, 384면)

(李施愛) 등이 역사서술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 두 차례 이상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이징옥과 이시애였다. 이징옥은 세종대 북방 개척에 공을 세운 무신으로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수양대군에 맞서 군사를 일으키려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차상찬이 주목한 점은 그가 대금국(大金國)을 건설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봉기한 것이었다.[15] 이시애의 경우 "이씨왕조는 본래 함경도에서 이러남에도 불구하고 도로혀 그 발상지인 함경도의 인물을 시기박대하야 정부의 요직에는 한 사람도 참여치 못하게 하는데 더욱 불평을 품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차별 문제를 중심에 놓고 사고했다.[16] 이렇듯 대외적·대내적인 북방의 두 사건을 15세기 조선왕조에서 중요한 역사로 인식했다.

16-17세기에 주로 거론된 소재는 단연 임진왜란·병자호란이 한가운데 놓여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와 관련된 서술은 세부적으로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임경업의 활동, 그리고 당쟁 등으로 나뉘었다. 차상찬은 인조반정 사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봉기한 이괄을, 조선왕조를 다시 재조직할 역량을 가진 핵심인물로 보았다. 이괄이 고려와 조선의 태조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즉 국가 창건의 주역이 될 수도 있었던 이괄의 실패 이후 조선 정부의 재정 고갈 등으로 인해 병자호란을 맞았다고 서술한 것이다.[17]

임경업은 차상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 인물이었다. "피가 잇고 쓸개가 잇는 우리 조선사람 치고는 몃 만고(萬古)를 갈지라도 병자호란의 국치(國恥)를 잇지 못할 것이오 병자호란의 국치를 잇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당시 충의열렬한 개세(蓋世) 명장 임경업 장군을 잇지 못할 것"[18]이라고 하여 병자호란 전부터 특유의 헌신과 지략으로 군사작전을 계획했던 점을 강조하고 그가 당시 조선의 '대안'이었음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괄과 임경업 모두 각자 다른 위치에서 실패하고 조선이 당쟁의 한가운데로 빠져들었다고 설명했다.

차상찬은 당쟁을 가리켜 조선왕조 재위 519년 사이 약 300여 년에 오로지

15) 수춘학인, 「자칭 대금황제 이징옥」, 『별건곤』 3-4, 1928.7.(『전집』 4, 236-237면); 차상찬, 「이징옥 반란기」, 『별건곤』 8-1, 1932.12.(『전집』 5, 243면)
16) 수춘학인, 「관북호걸 이시애 란」, 『별건곤』 3-5, 1928.8.(『전집』 4, 250면)
17) 차상찬, 「이괄 원수의 갑자반란기」, 『별건곤』 2-3, 1927.3.(『전집』 4, 48-49면)
18) 차상찬, 「만고정충 임경업 장군」, 『별건곤』 1-1, 1926.11.(『전집』 4, 27면)

사화를 포함해 당쟁이 역사의 전 페이지를 채웠다고 보았다. 조선조의 역사가 당쟁사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면서, 유학(儒學)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옳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정권이나 왕권이나 모두 당쟁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19] 장희빈에 대한 서술에서도, 장희빈 자체보다 당쟁의 국면에서 장희빈과 원자를 둘러싼 당파의 투쟁을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가운데 당쟁이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이 학문 분야로 진출하게 되고 그것이 천주교의 수용과 동학의 창도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운 최제우를 남인파라고 기술했다.[20] 이렇듯 차상찬에게 있어서 16-17세기는 대체로 외세의 침략과 개혁 기회의 상실, 당파 투쟁의 나락에 오랫동안 빠지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들로 재현되었다.

19세기 이후로는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고 그 외에는 신미양요 및 개항 이후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란' 등이 검토되었다. 특히 홍경래에 대해서는 혁명아로 지칭하면서 높게 평가했는데, "순연한 농민을 토대삼고 이러나" "아주 평지돌출의 일개 28세 청년으로 아모 지벌(地閥)도 세력도 배경도 업시 자기의 맨주먹 한아만 가지고 이러나서 불과 20일 동안에 청북(淸北)의 팔웅주(八雄州)를 점령하고 일편(一片)의 고성(孤城)으로 만여 관군을 3개월 이상이나 대적하되 조금도 기외(忌畏)함이 업고 또 자기가 당당히 국호를 짓고 왕이 된 것" 등이 그에게 관심을 쏟은 이유였다.[21] 이밖에 임오군란의 경우 조선왕조 창건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내란이라고 하면서 민씨정부를 끌어내린 공과 민씨정부가 청나라를 불러들인 죄악을 더불어 조명한 바 있다.[22]

'동학란'에 대해서 『별건곤』 지면에서는 개별 사건이나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을 취했지만, 차상찬은 비슷한 시기 『개벽』지에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민중운동이라고 주목한 바 있다.[23] 그리고 천도교 잡지 『신인간』에 쓴

19) 차상찬, 「조선의 당쟁」, 『별건곤』 3-6·7, 1928.12.(『전집』 4, 285면)
20) 같은 글(『전집』 4, 302면).
21) 차상찬, 「홍경래신미반란기」, 『별건곤』 6-1, 1931.1.(『전집』 5, 196-197면)
22) 차상찬, 「임오군란의 회상기」, 『별건곤』 3-5, 1928.8.(『전집』 4, 267면)
23) 차상찬, 「갑오동학란의 자초지종」, 『개벽』 68, 1926(차상찬전집편찬위원회 편, 『차상찬 전집』 1,

글에서도 "갑오동학란은 우리 조선민중운동의 최선봉이다. 그의 성패 이둔(利鈍)은 문제 삼을 바가 안이어니와 그로 인하야 적어도 우리 조선사람이 계급의식을 갓게 되고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 횡폭무쌍하던 양반의 세력을 타파하고 백성도 다가튼 사람이란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며 국제적으로는 근세동양의 일대 풍운인 일청전쟁을 야기하야 그 결과로 마관조약(馬關條約)이 성립되는 동시에 조선이 또한 세계적 조선이 되엿다"고 그 의미에 주목했다.[24]

이처럼 차상찬이 주목한 사건과 인물들을 정리해보면, 고구려의 수당에 맞선 전쟁과 왕건을 통해 고려 건국의 의미가 거론되었지만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략과 당쟁으로 인해 혼란상에 빠진 조선시대의 모습, 그에 맞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저항과 반란 등에 의의를 부여하며 역사서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즉 위기의 누적과 난관을 뚫고 일어났던 개혁, 정확히는 왕조 교체를 지향하는 조선시대 저항・반란에 관심을 기울였다. 바로 이 점이 차상찬의 역사서술의 두 번째 특징이었다. 조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가운데 저항과 반란의 주체들을 발굴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으로 대표되는 차상찬의 역사서술은 지금까지 파악된 근대 사학사의 일반적 논리 전개와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 조선의 과거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식민주의 역사학의 방식일 수도,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의 서술 방식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일본인 학자들의 식민주의 역사학은 조선 역사의 변화 계기를 일본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찾았고,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는 생산력의 발전과 계급투쟁으로 상정했다. 그런데 차상찬에게서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반역과 반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물며 차상찬이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본 것도 아니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차상찬은『별건곤』지면에 '조선 자랑'을 기획하기도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2018, 216-228면). [표 1] 22번 '동학란'에 대한 글의 원제목도 「민중운동으로 이러난 갑오동학란비록」이다.

24) 청오, 「동란잡화 기 1」,『신인간』1-1, 1926.4., 53면.

했고, 조선 역사의 긍정적 면모들을 서술하기도 했다.

> 민족의 수치되는 일도 잇고 한 되는 일도 잇고 눈물 겨운 일도 만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역사과정상 면치 못하는 일이다. (…) 우리 역사에 잇서서 자미스럽지 못한 것은 건강자의 일시적 병과 가티 돌리여서 불문에 부치고 다만 자랑거리 되는 것만 몃 가지 추리여서 말하랴 한다. (…) 우리가 조선을 자랑하는 본의는 무슨 쇠패하야진 양반의 자식이 자기의 족보를 펼처놋코 썩은 조상의 벼슬한 것이나 잘낫든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가튼 점에 잇지 안코 과거의 자랑될 만한 것을 잘 알아가지고 현재를 비관치 말고 미래에 자랑할 만한 생명을 개척하는 데 잇는 것을 짐작하면 조흘가 한다."[25]

역사 속에서 부정의 대상과 긍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차상찬은 양반계급의 치적을 찾는 방식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현재를 위해 새 삶을 열어가는 소재를 찾는 데 집중한 것이다. [표 1]의 13번, 16번, 17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의 자랑이 될 것은 과거 강대했던 군사력, 무예를 숭상한 자세, 명장·명외교관 등이었고 이와 함께 시·서·화 등 문화예술이 일부 거론되었다. 저항·반란이 자랑 그 자체였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조선의 과거에서 빛났던 순간을 찾아 조선인의 민족적 결집을 꾀한 것이 민족주의 역사학의 본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민족정신의 기원을 찾고자 했고, 최남선은 단군신화에 주목하면서 일본과 다른 민족의 원형질을 규명하는 데 힘썼다. 또한 정인보, 안재홍은 조선상고사에 대한 독자적 연구뿐만 아니라 1930년대 중반 이후 실학에 대한 재조명을 바탕으로 조선학을 세우고자 하는 학문적 활동을 전개했다.[26] 긍정해야 할 대상이 차상찬과는 달랐다.

---

25) 차돌이, 「종으로 본 조선의 자랑」. 『별건곤』 3-2·3, 1928.5.(『전집』 4, 203-204면)

26)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류시현, 『최남선 연구』, 역사비평사, 2009 중 제2부 2장; 채관식, 「안재홍의 인류학 이론 수용과 조선상고사 연구」, 『한국사연구』 167, 한국사연구회, 2014; 류시현, 「1930년대 안재홍의 '조선학운동'과 민족사 서술」, 『아시아문화연구』 22,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류시현, 「정인보의 조선유교와 한국고대사 인식—「오천년간 조선의 얼」을 중심으로」, 『공존의인간학』 2,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2019.

물론 신채호와 같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조선 일천년래 제일대 사건」처럼 '사대주의'에 대한 저항에 주목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신채호는 주족(主族)의 역사를 확립하기 위해 힘썼던 역사학자로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안재홍・정인보 등과 연구 소재상에서 차이가 나고 민중 주체적 사관을 받아들이면서 관점상의 변화도 겪었지만, 민족의 정체성 형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많았다.

그렇다면 사화(史話) 형식에도 관심이 깊고 민중의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문일평은 어땠을까. 확실히 문일평은 앞서 거론했던 지식인들보다 차상찬과 관계가 깊었다. 엄태웅이 차상찬의 『통속 조선사천년비사』의 초출(初出)을 확인하며 밝혔듯이, 이 책에는 문일평이 썼던 글 세 편이 수록되었다.[27] 차상찬이 주도했던 『별건곤』의 청탁에 호의적이었고, 역사인식의 공감대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일평이 저항과 민중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입장은 1920년대에 주로 나타났고, 민족사 체계를 구성할 때 고려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든지 시기별 특징을 규명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조선학 진흥에 참여하며 실학을 재발견하고 조선시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나간 것 등은 차상찬과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28]

차상찬은 [표 1]의 목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흥밋거리의 역사 기사도 썼지만, 주로 조선후기에 초점을 맞춰 저항과 반란의 역사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예를 들어, 이징옥, 이시애, 임경업, 이괄, 홍경래에 대해서는 『별건곤』 이외에도 여러 차례 지면에 소개했다.[29] 그가 주목한 것은 넓게 보면 사람이었고 수많은 역사 인물의 인상평을 남겼다. 그 가운데 세상을 바꿀 번한,

---

27) 엄태웅, 앞의 글, 187-194면. 문일평은 살수대첩과 을지문덕, 강감찬, 최영 등을 다뤘다.

28) 류시현, 「1920-30년대 문일평의 민족사와 문화사의 서술」.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류시현, 「1930년대 문일평의 조선사 연구와 실학의 재조명」, 『한국인물사연구』 23, (사)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29) 차상찬, 「이징옥 반란기」, 『제일선』 3-1, 1933; 「후금황제를 꿈꾸던 절도사 이징옥」, 『조광』 2-8, 1936; 「임경업 장군의 칼」, 『학생』 1-7, 1929; 「반역아 이괄」, 『월간야담』 2-4, 1935; 「풍운아 열전 삼일천하 이괄」, 『조광』 2-3, 1936; 「풍운아 열전 관부 괴걸 이시애」, 『조광』 2-3, 1936; 「풍운아 열전 평성대원수 홍경래장」, 『조광』 2-2, 1936.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썼다.

이러한 '개혁적'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역사인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전형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이라 하기도 어렵고, 마르크스주의에 뿌리를 둔 역사학도 아니다. 한국 근대 역사학에 대한 연구에서 검토된 적이 없는 독특한 역사인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의 역사인식이 어떠한 배경으로부터 발원한 것인지, 이를 탐색함으로써 1920-30년대 많은 지식인들에 의해 조선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던 상황을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후천개벽을 향한 인간 실천 중심적 역사인식

차상찬과 유사한 논리를 펼치는 글을 동시대 천도교 계통 잡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26년 6월에 발행된『개벽』70호의 특집 내용을 살펴보자. 개벽사 편집진은 순조의 사망에 맞춰 조선왕조에 대한 평가를 기획했다. 차상찬도 「회고이십칠역대」(차상찬), 「이태조의 건국백화」(차천자), 「사화와 당쟁」(성동학인) 등을 썼다. 이 책의 「현실을 응시하자」라는 제목의 권두언은 사화와 당쟁, 지배계급의 폭학, 민중의 혁명운동으로서 홍경래란과 갑오동학란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30]

또한 김자립이라는 필자가 쓴 「오백년간의 혁명운동」은 마치 차상찬의 역사서술을 압축해놓은 것처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조선시대 '혁명운동'을 "무엇보다 많은 민요(民擾), 자칭 대금황제 이징옥, 북조선을 움직인 이시애 형제, 전조선을 호령한 이괄, 영남 거물인 이인좌, 관서가 산출한 홍경래 운동, 백만의 당원을 옹유한 동학당" 순서로 정리했다.[31]

둘째, 1930년 8월부터 1931년 7월까지 조선농민사 기관지『농민』에 한 호당 2-4면씩 실린 천도교 간부 정응봉의 조선사 정리도 주목할 만하다.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연재된 글의 목차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32]

---

30) 「현실을 응시하자」,『개벽』70, 1926.6., 2-3면.
31) 김자립, 「오백년간의 혁명운동」,『개벽』70, 1926.6., 47-53면.
32) 중세사·근세사의 전반부는 영인본에서 누락되어 확인하지 못했다. 정응봉, 「역사강좌 제1회 조선사 略要」(1),『농민』1-4, 1930.8., 4-6면; 「역사강좌 조선사 略要」(2),『농민』1-5, 1930.9., 10-12면;

[표 2] 조선농민사 기관지 『농민』 수록 정응봉의 역사강좌 연재 목차

	장 제목	절 제목
상고사	제1장 조선 종족의 흥기와 기원	
	제2장 열국시대의 현상	
	제3장 위만시대	
	제4장 한사군시대	
	제5장 상고조선의 생활상태	
중고사 : 제1기 삼국시대	제1장 삼국과 가락의 건국	고구려, 신라, 백제, 가락
	제2장 삼국의 형세와 내외관계	고구려의 흥륭, 나제동맹, 신라의 융성, 려・수의 관계, 삼국과 및 당나라의 관계
	제3장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
	제4장 삼국의 문화	삼국의 제도와 법령, 한학의 전래, 불교의 전래, 미술공예
중세사・근세사	제5장 인조의 혁명과 이괄의 난	인조의 혁명, 이괄의 난
	제6장 병자호란과 기 후의 당쟁	정묘란, 병자란, 당쟁의 격렬
	제7장 홍경래의 혁명과 척신 전횡	홍경래의 혁명란, 척신의 전횡
	제8장 이조의 문화	정체와 관제, 종교와 학술, 공예와 풍속

상고사와 중고사 부분은 큰 특색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민족주의 역사학의 역사서술 내용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세사・근세사에 대한 부분 가운데 목차를 확인할 수 있는 5장부터 7장의 조선후기 부분은 정치사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며, 차상찬의 역사서술과 사실상 동일하다. 8장에서 조선시대의 문화에 주목하는 것이 약간 다르지만, 차상찬이 조선의 당쟁에 대해서 쓸 때 남인으로부터 학문의 발흥을 지적했던 것과 동학 창시자 최제우의 출현을 예비했던 것과 동일한 배치라고 판단된다.

셋째, 차상찬이 『통속 조선사천년비사』를 출간했을 때 서평을 쓴 이학인[33]의 역사인식도 살펴볼 수 있다. 이학인은 『신인간』에 '천도교 연구'를 연재했다. 첫 번째 글을 통해 조선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독자적인

「역사강좌 조선사 略要」(3), 『농민』 1-6, 1930.10., 38-39면; 「역사강좌 조선사 略要」 (4), 『농민』 1-7, 1930.11., 12-15면; 「역사강좌 조선사 略要」(5), 『농민』 1-7, 1930.11., 17-19면; 「이조오백년사」, 『농민』 2-6, 1931.5., 20-21면; 「조선사약요(承前)」, 『농민』 2-7, 1931.7., 33-35면.

33) 엄태웅, 앞의 글, 165면.

문화가 있었고 뛰어난 문명도 있었지만, “조선이 이럿케 부패쇠망에 드러감은 그 원인을 대개 문약정치와 사색당쟁에 돌닐지니 문약정치는 물론 이조 초엽부터어니와 사색당쟁은 선조시대부터이엿다. 당초에 이태조끠서 남정북벌의 전공을 빙자하야 고려 왕씨를 꺼구러치고 이씨조선을 창업할세 그가 그 아들 태종과 동력하야 왕조 규모를 초창하매 그들은 일조 고려 왕씨가 무신의 작난으로 망한 것을 전감 삼아 자기네는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억압하기로 하야”라고 하여 일차적으로 조선시대의 혼란상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누적된 모순의 대안 모색이 대선사 최제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았다.[34] 동학・천도교 출현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혼란의 해결책으로 과잉 해석된 부분이 있겠으나, 최제우의 동학 창도를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읽고 있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상찬과 개벽사의 활동부터 줄곧 함께 한 김기전의 역사인식을 살펴보자. 김기전은 조선농민사를 통해 『조선최근사십삼강』이라는 80면 분량의 역사서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최근사를 헌종・철종 이후 병합 때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라 하면서, 1장에서 조선왕조 500년사를 개관하고 2장에서 바로 동학의 세력화를 검토한 뒤 병합을 다루는 마지막 13장까지 일본의 침략정책과 조선 내 개혁운동을 다루었다.[35] 최근사를 새 시대를 맞이하는 시기로 규정하였고,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갑. 종래의 소위 선일(仙逸)국민으로부터 근대적 국민의식을 갓는 「활동국민」에로 유도, 전환되기 시작한 것

을. 초기에는 위선 재래의 유적(儒的) 낡은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 천주교와 가튼 외래의 사상을 전역하다가 얼마 아니하야 동서의 선천(先天)사상을 대신하야

34) 이학인, 「천도교 말세에 대하야-천도교 연구 제1회」, 『신인간』 33, 1929.3., 11면.

35) 김기전, 『조선최근사십삼강』, 조선농민사, 1930 중 ‘목차’. 목차는 아래와 같다. 1강 이조오백년사대관, 2강 이조의 쇠란과 동학당의 창건, 3강 고종의 등극과 대원군의 개혁, 4강 민비의 전횡과 임오군란, 5강 갑신정변과 천진조약, 6강 동학당의 궐기와 일청전쟁, 7강 갑오개혁과 을미정변, 8강 대한독립과 노국의 발호, 9장 제정당적 결사의 발생과 기(其) 길항, 10강 일로전쟁의 진행과 한일의정서의 체결, 11강 일본의 전승과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12강 해아밀사사건과 고종의 양위, 13강 경술의 병합 전말.

후천개벽을 주장함과 가튼 세기말 인간으로의 근본적 귀추를 말하는 동학사상의 발현을 보게 된 것

병. 처음에는 단(單)히 민요(民擾), 변란과 가튼 단서적(端緖的) 항쟁을 할뿐이다가 점차 발전되야 조(朝)에 잇서는 근대적 정당운동, 야(野)에 잇서는 근대적 민중운동이 된 것(예. 순조조의 홍경래란, 그후의 독립협회, 일진회 등)[36]

김기전은 이처럼 조선최근세사의 시작을 '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동학사상의 출현으로부터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목차에서도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1894년 '동학란'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37]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서는 근대적 정당운동이, 민간에서는 민중운동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상 네 가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첫째, 조선사의 고질적 낙후와 동학 창도 및 '동학란'의 사회개혁적 민중운동으로서의 의미와 둘째, 그들이 주목한 역사적 사실이 대부분 '개혁파' 인물의 실천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즉 전자에는 동학의 창도로부터 후천개벽 정신이, 후자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인본적 정신과 또 한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주의주의(主意主義)적 경향이 함께 녹아있었다.

천도교 계열 지식인들이 후천개벽의 과제와 이를 위한 인간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천도교 교리 해설과 사회운동론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천도교의 정치이념』은 해방기 천도교청우당의 활동과 관련하여 편찬된 것이지만, 뒤에서 살펴보듯이 1930년대 무렵 지식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 김병제는 우주 생성 원리가 통일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다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인간사회의 진화·변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바로 후천개벽이 분열에서 통일로 회복되는 노정

36) 김기전, 앞의 책, 3면.

37) '동학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점을 중요하게 설명했다. 첫째, 이 운동이 갑오의 개화당운동과 같이 동일한 집권계급 안에서 개신파가 수구파에 대한 정견상의 충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이중압박에서 신음하는 상민계급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시도한 민중운동이라는 점. 둘째, 그 결과는 조선 재래사회의 진첩(陳疊)을 흔들고 개혁 정부의 출현을 촉진하여 상하가 함께 변혁의 신기운을 음미하도록 한 것. 셋째. 청일전쟁의 근인(近因)이 되어 동양 대세를 변동케 한 것 등을 '동학란'의 의미로 꼽았다. 김기전, 앞의 책, 22면.

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인류의 역사발전 단계에 적용해보면, 통일체로서 원시공산사회가 노예제도가 발생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하고 자유민 대 노예, 귀족 대 평민,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대립이 이어졌으나 계급해방운동에서 천도교의 개벽운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38]

『천도교청우당론』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재확인되었다. "우리 당의 사상 의식의 핵심이 되는 한울도의 새 진리는 서기 1860년을 시간상 선천·후천의 경계선으로 한 조선의 실현에 입각하여 우주 인생의 영원·무궁한 발전·변천의 추세 및 그 근본 원칙을 천명한 것이며, 그 새 진리를 실현하는 데서는 조선의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민주주의적 진보적인 방면으로 발전·변천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후천개벽 완성의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하여 후천개벽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였다.[39] 그리고 이 가운데 선천은 "기성의 불합리·불공평한 문화적 내용 및 제도"가 형성되어왔던 시기이며, "영원·무궁히 발전·향상하는 근본 진리 (…) 곧 '인내천'"이 창도되면서 후천개벽 새세상을 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40]

무엇보다 후천개벽을 통한 선천 시기 모순의 청산, 분열과 대립을 인내천 종지를 따르는 인간의 실천에 의해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1930년대 『신인간』 지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임연은 「수운주의자의 역사적 태도」에서 "선천은 후천을 위한 즉 신인간을 발견하고 실천하랴는 무의식적인 서곡적 준비적 노력이요 후천은 신인간 즉 진인간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41]

『별건곤』 지면에서는 후천개벽의 의미를 직접 설명한 바 없지만, 차상찬도 『신인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 한울은 우리의 조선사람을 버리지 안이하고 또 장차 세계의 생령을 구하기 위하야 선천 5만년의 무공(無功)한 것을 슬퍼하며 후천 5만년의 새 진리, 새 운수를 천명

38) 김병제, 『천도교의 정치이념』,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5, 27-28면.
39) 김병제, 같은 책, 170면.
40) 김병제, 같은 책, 166-167면.
41) 임연, 「수운주의자의 역사적 태도」, 『신인간』 6-1, 1933.1., 46면.

> 개척하랴고 대한인 대철인의 몸을 비러 광명한 대도를 세상에 창출하게 되얏스니 그 도가 곳 금일의 천도교요, 도를 바든 위인이 최수운 대선사엿다. 모르는 사람은 천도교의 창출한 것을 수운 선생 일개인이 엇던 과학자의 과학연구하듯시 우연적으로 발견 발명한 것과 가티 생각할는지 알 수 업스나 천도교는 결코 수운 선생 일개인이 우연적으로 창출한 것이 안이요 당시 천하의 대세가 필연적으로 천도교를 창출하게 된 것이며 천하의 인심이 천도교를 요구하게 되야 천도교가 생겨난 것이다.[42]

여기서 차상찬은 선천 5만 년이 성과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후천 5만 년을 이끌 새로운 도가 최제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차상찬도 선천의 시기를 후천에 의해서 청산되어야 할 시기로 보고 있으며, 바로 천도교를 창출하도록 이끈 인심이 최제우를 통해서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차상찬이 조선후기사 그리고 동학, '동학란'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이상과 같이 천도교 계열의 역사관을 공유한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천도교 계열 지식인들이 인본적 사고와 역사에서 인간의 실천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던 배경을, 역시『천도교의 정치이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김병제는 천도교 특유의 역사관을 '사람성(性)자연사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사람성자연은 심(心)과 물(物)이 하나가 되는 지기(至氣)의 표현으로, 사회진화가 사람성자연의 시대적 진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므로 유심사관도 유물사관도 진리가 아니라고 하며, 오로지 "사람성자연은 언제나 그 주동적 주체가 되는 동시에 그 자체에 변천·발전의 자재(自在)한 법칙을 가지고 인간의 사상과 경제적 조건에 변화적 작용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43]

이는 1933년『신인간』에 발표된 김형준(김오성)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형준은 인간 역사의 발전을 인간의 노력을 떠나서 발견할 수 없다며, 사회적 실천에 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관념이 중심이 되는 신비적 운명이나,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경제관계의 기계적 인과법칙이 아닌 "인간과 인간과의 실천적 힘의 교체"로부터 역사의 발전 계기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44] 사람성자연사관이라는 말로 정식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42) 차상찬,「69년 전 동양의 대세와 천도교 발흥의 필연성」,『신인간』3-4, 1928.4., 22면.
43) 김병제, 앞의 책, 28-30면.
44) 김형준,「문화운동의 신전망」,『신인간』6-1, 1933.1., 34면.

유심과 유물 양자를 모두 거부한 인간 실천 중심의 역사인식을 설명했다.

앞서 차상찬의 역사서술이 저항·반란사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사회적 모순을 자각한 인간의 실천 행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하고자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임경업에 대해서 차상찬은 인조가 당시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스스로 나라를 위하여 온몸을 바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인조가 조금이라도 명철한 지혜가 있었다면 임경업을 신임하여 병자호란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45] 병자호란의 문제를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인조와 자신을 희생하여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임경업 두 사람의 실천의 방향과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즉 인간의 실천 행위가 역사 전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차상찬은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실천적 노력에 주목했으며, 역사를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역사인식이 반드시 민중층만을 역사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민중층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서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차상찬이 민중의 행위를 직접 묘사하기 위해 힘쓴 흔적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그가 항상 실패한 영웅을 주목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상찬은 오히려 특출한 위인의 역할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위인이든 민중이든 현실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차상찬의 역사서술은 조선 민족과 민중을 거론했다고 하더라도, 당대의 민족주의 역사학이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는 달랐으며, 청년기 이후 그의 활동 배경이 되었던 천도교의 이념, 정치·문화운동론, 역사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가 한학적·유학적 배경에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지식을 결합하여 학문을 형성해나갔기 때문에 한학·유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지만,[46] 차상찬의 이러한 특징 자체가 일제하 해방직후 천도교를 이끌었던 세대의 공통점이기도 했던 것이다.

---

45) 차상찬, 「만고정충 임경업 장군」, 『별건곤』 1-1, 1926.11.(『전집』 4, 45-46면)

46) 민족문화 창달자로서 차상찬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한학·유학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길수, 앞의 책, 30-42면; 정현숙, 「차상찬 연구① 기초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위한 제언」, 『근대서지』 16. 근대서지학회, 2017, 88면.

4. 현재적 교훈의 강조와 동요하는 역사성

지금까지 차상찬의 역사서술이 어떠한 소재와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그 가운데 어떠한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차상찬은 주로 조선후기의 저항·반란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였고, 이 가운데 천도교인답게 동학의 창도를 선천과 후천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하며 후천개벽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채 조선의 역사에서 인간의 실천을 역사 변동의 계기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차상찬은 왜 역사를 쓰고자 했을까. 그가 역사서술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 왜 이러한 내용과 관점으로 역사를 썼을까.

차상찬이 역사서술에 참여한 이유를 스스로 밝힌 글은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다. 많은 분량의 역사 기사를 남겼음에도 그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의 역사서술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서 추론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차상찬이 생각한 역사서술의 기본 전제는 과거의 사실을 그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알리는 데 있었다. 특히 잘못 이해되어 왔다고 판단한 개혁가들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인조는 능히 장군(임경업-인용자)을 지(知)치 못하고 간적(奸賊)을 신임하다가 국사를 오(誤)하고 또 장군의 원죄(冤罪)를 지하면서도 고의부단(孤疑不斷)하야 왕사(枉死)에 지(至)케 하얏스니 엇지 후세에 암군(暗君)이라는 기(機)를 가히 면하랴. 이로 미루어보면 갑자의 괄(适) 란(亂)과 병자 남한(南漢)의 욕(辱)은 인조가 자초하얏다 하야도 과언이 안일 것 갓다. 기 후 효종은 또 북벌의 장지(壯志)가 유(有)하야 송시열 이완 등을 신임하고 인물을 방구(旁求)하얏스되 장군의 원(寃)은 능히 신(伸)치 못하얏스니 엇지 명군(明君)이라 가위(可謂)하랴. (…) 그리고 후세에 장군의 전기를 술하는 자가 기 수가 심다(甚多)하얏스나 대개 존주적(尊周的) 노예주의에 중독되야 이구동성으로 장군을 찬(贊)하되 왈 대명충신(大明忠臣) 왈 황조배신(皇朝陪臣) 운운하야 장군의 일생 진췌가 모다 명국(明國)을 위하야 함과 여히 하얏스니 이것이 엇지 장군에 대한 유감이 아니랴.[47]

47) 차상찬,「만고정충 임경업 장군」,『별건곤』1-1, 1926.11.(『전집』4, 46-47면)

차상찬은 위 인용문에서 인조가 임경업을 알아주지 못했고 그러므로 결국 인조를 암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으며, 효종 역시 북벌을 말하며 임경업의 신원을 해주지 못했던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후대 역사가들도 모두 사대적 사고에 젖어 임경업을 조선을 버리고 명을 좇은 인물로 조명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임경업의 면모가 현재까지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했다.

> 이괄이라 하면 이때까지 세상사람들이 의례히 그놈 역적놈 죽일놈하고 여지업시 붓으로 베히고 입으로 치고 발로 짓발버서 뒤의 사람들은 그가 과연 엇더한 사람인지 알 수도 업게 되엿다. 그것은 과거 군권만능시대에 당시 군주의 정부를 옹호하는 자들의 당연한 일이겟지만은 오늘에 잇서서 우리 일반 민중으로 본다 하면 녕(寧)히 그를 호걸아 풍운아라 할지언정 그다지 역적놈이니 죽일놈이니 할 것은 업다. (…) 그가 그때에 불행히 실패를 하얏기에 그러하지 만일에 성공을 하얏다 하면 고려태조나 이태조 가튼 창업지주가 되야 만성(萬姓)이 그의 공덕을 구가하얏슬는지 알 수가 업슬 것이오 그럿치 안으면 적어도 제2반정의 대원훈이 되야 혁혁한 방명(芳名)으로 죽백(竹帛)에 들엇슬 것이다.[48]

이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괄에 대한 평가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으레 역적이라는 말로 대변되었는데 이는 왕권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과거의 시각일 뿐이고, 현재의 일반 민중 중심의 관점에서는 비록 그가 역사 속 패배자라 하더라도 재고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나아가 그의 의도와 행동을 통해 볼 때 봉기를 성공했다면, 국가 재조(再造)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평가까지 덧붙였다.

> 한양조 500년 동안에 소위 정치적 불평을 품고 이러난 반란이 허다하엿지만은 그 중심인물을 보면 대개가 일시적 야심의 권신(權臣)이 안이면 변장(邊將) 무인이오, 순연한 농민을 토대 삼고 이러나서 능히 천하를 닷툰 참말의 혁명아는 세조 때에 길주 이시애와 순조 때에 용강 홍경래와 근래 갑오에 고부 전봉준 세 사람 뿐이엿다. (…) 위업을 이르지 못하고 즉시 실패하고 말엇스나 그(홍경래-인용자) 인물과 웅도(雄圖)로 보면 결코 홍수전(洪秀全)에 지지 안는다. 그러나 그 때 정부측의 소위 어용사가와 고명한 민간사가들은 그를 그저 역적으로만 몰고 그 인물과

48) 차상찬, 「이괄 원수의 갑자반란기」, 『별건곤』 2-3, 1927.3.(『전집』 4, 48-49면)

사업을 전혀 말살식히어서 후세사람들이 그의 영자(影字) 좃차 차저볼 수 업게 되엿스니 엇지 가탄가석할 바가 안이랴.[49]

마지막으로 홍경래에 대해서도 농민을 조직하여 일어난 조선 역사 속 3대 혁명가로 조명하면서 태평천국운동을 이끌었던 홍수전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왕조와 민간 역사가들이 인물됨과 활동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역적으로 보거나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경업, 이괄, 홍경래 등 그가 주목했던 대표적 인물들을 올바르게 이해해달라는 요청은 그의 글 가운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의미 부여 방식이었다.

이는 기존의 왕조 중심, 지배층 중심의 역사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저항·반란의 인물과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담론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차상찬의 역사서술은 과거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내포하면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재고찰할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바로 차상찬이 쓴 역사를 읽고 소비하게 될 독자들이 조선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길 바라며 과거의 저항·반란이 현재적 교훈이 되길 바랐다. 조선후기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조명한, 차상찬이 쓴 역사가 후천개벽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는 천도교가 후천개벽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차상찬이 그러한 천도교의 활동 방향에 공감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상찬이 현재적 교훈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은 김기전이 최근세사를 "한 지나간 녯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살고 잇는 이 매듭의 생활과 관계가 잇는 것임을 인식하야 자기의 현재 생활을 구명함과 가튼 따수한 태도로서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조언한 것도 일맥상통한다.[50] "따수한 태도"가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개혁운동이 이어져온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의 후천개벽 개혁운동을 이끌어가자는 당부에 다름 아니었다.

---

49) 차상찬,「홍경래신미반란기」,『별건곤』6-1, 1931.1.(『전집』5, 196-197면)
50) 김기전, 앞의 책, 3면.

> 기초적 교양으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상식을 알게 하는 것이 순서상 당연한 길일 줄로 안다. 웨 그러냐 하면 역사라는 것은 인류가 인류 자기네의 직접의 살임사리를 의식케 하는 기초적 교화가 됨으로 써이다. (…) 역사는 진화를 자랑하는 인류문화를 의식하는 민족이 가젓슬 뿐이다. 그리하야 마창가지 문화의 역사를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잘 민족화 함과 부(否)함에 딸아 그 민족의 장래에 대한 성쇠변천(盛衰變遷)를 말하게 된다. (…) 조선의 근대문화는 이 긴 역사를 소화할만한 교양을 민족에게 주지 못하엿다. 조선사람이 민족적으로 결함이 잇다 하면 이 이상 큰 결점은 업슬 것이다. 민족의 역사적 교양을 주는 데 잇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잇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방법에 딸아 순서도 달으고 방식도 달으다. 그리하야 효과도 달으다. 역사적 교양이 가정에 잇서는 동화적으로 나타나고 학교에 잇서는 군대적이 되야지고 사회에 잇서는 대중적이 되야지는 것이다. (…) 사화(史話)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역사적 교양을 줌에 큰 효과가 잇을 것은 논할 것도 업거니와 취미상으로 보아 소설보다도 진진(津津)한 맛이 잇고 필치의 유창함이 문예의 미를 가첨(加添)한 점에서 확실히 사계(斯界)의 큰 영광을 주엇다 할 수 잇다.[51]

이상은 이돈화가 『통속 조선사천년비사』 서문으로 쓴 것이다. 이돈화는 이 글에서 역사를 민족과 인류가 가져야 할 교양으로 이해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역사를 통해 '문화 민족'은 자신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이를 가르침으로써 대중은 교양을 갖춘 조선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돈화가 보기에 역사를 쓰고 가르치는 것은 현재를 위한 목적의식적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지만, 사화를 통해 대중과 직접 교류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이돈화의 말도 역사를 과거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역사의 의미를 현재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거론하고 있었고, 이 또한 역사를 현재적 교훈으로 만들었다.

후천개벽의 사회개혁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역사서술은 과거를 그 자체로 바라보기보다, 현재에 교훈이 될 소재를 발굴하고 사회개혁에 걸맞은 인물 또는 사건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도 살펴본 바이지만, 이괄의 실패를 차상찬은 몽매한 군주였던 인조의 무지와 잘못으로 보았고, 권력 내부의 분열상이라든가 이괄의 난이 일어나게

51) 이돈화, 「서」, 차상찬 저, 『통속조선사천년비사』, 북성당서점, 1934.

된 우연적 조건이라든가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조사·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이괄의 난이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긴 했으나, 그보다 '실패한 혁명'으로서 주목하면서 조선 역사 전개에서 그 의미를 과대해석하게 되었다. 또한 임경업의 경우도 조선의 앞날을 내다본 비운의 장수로 평가하였으나, 그가 실제 보인 숭명반청의 태도와 독단적인 행동 등은 '노예주의'적 시선에 의해서 왜곡되어 전해진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차상찬의 역사서술에는 그 시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즉 사회개혁이라는 현재적 교훈을 위해 이징옥-이괄-임경업-홍경래 등의 저항·반란 사건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역사서술이 특정한 가치를 앞세우는 가치 중심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것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된 데에는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천도교 역사관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천의 역사 전개는 후천 시기 개벽운동에 의해서 청산되어야 했다. 선천 시기 역사를 서술할 때 차상찬도 특정한 한 사건이 다음 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민중 역량이 계발되고 변화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결국 후천개벽으로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천도교 역사관은 동학의 창도와 '동학란', 천도교 활동의 정당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차상찬이 이러한 영향 아래 있는 한 그도 역사적 시기의 의미, 역사성을 드러내는 데 매우 미숙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차상찬은 홍경래에 대한 역사 기사를 쓰면서, "본지(本誌)에 여러 번 홍경래난기(洪景來亂記)가 소개되엿스나 그것은 대개가 전설이 만엇고 이번에는 근래에 새로 발견된 여러 기록을 참조하얏기 때문에 비교적 사실이 적확하고 상세한 것을 미리 말하야 둔다"고 하였다.[52] 그가 모든 글에서 각주와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글쓰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했던 것이다.

---

52) 차상찬,「홍경래신미반란기」,『별건곤』6-1, 1931.1.(『전집』5, 198면)

그러나 사료 활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현재와 과거의 관계에서 현재의 필요성을 위해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울어져 있었다. 현재에 의해서 재해석된 과거의 한계와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 역사를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저항-반란과 관련된 인물·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인간의 실천의 의미를 역사를 통해서 깨우쳐야 할 가치로 삼을 수는 있었지만, 그 인물들의 활동과 사건이 어떠한 시대적·역사적 맥락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역사서술이 갖춰야 할 역사성은 흔들렸다.

차상찬의 역사인식에는 실천이 최종적인 단계로 설정된 역사서술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딜레마가 담겨 있었으며, 이러한 딜레마의 근저에는 선천 시기를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천도교 역사관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가 그린 저항·반란도 사(史)로 잘 엮여지지 않은 채 분절된 사(事)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선천 시기의 역사적 재현 작업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개별적 소개와 함께 차상찬이 추구하는 인간 실천을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상찬의 역사인식이 발현될 수 있는 역사서술 형태는, 어쩌면 개별 인물·사건 등을 이야기 방식으로 전달하는 사화(史話)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차상찬이 일부러 의식적으로 사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인식에 내장된 특징이 사화의 길로 인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오랜 시간 조선의 역사를 중요하게 검토한 차상찬은 그가 주관했던『별건곤』지면에 많은 역사 기사를 남겼다. 이 글은 차상찬이 쓴 77편의 글을 분석하여 그가 어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천도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역사서술의 내용을 검토했다. 차상찬 개인에 주목하는 한편, 천도교 계열 지식인의 역사관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이다.

차상찬의 역사 기사는 조선후기에, 지배권력에 저항한 개혁적 인물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가 다룬 소재와 주제는 일제하 민족주의·마르크스주의 계열 역사가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차상찬과 유사한 관점에서 조선의 과거에 주목한 사람들은 주로 천도교 계열 지식인들이었다. 이징옥, 이괄, 임경업, 홍경래 등을 중요하게 거론했고 동학의 창도를 분기점으로 보면서 '동학란'을 민중운동이자 개혁운동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띠었다. 첫째, 천도교 교리와 정치·문화운동론으로서 후천개벽을 중요한 목표로 내면에 깔고 있었으며, 둘째, 인간 실천으로 역사가 진화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서 선천과 새로운 세계를 열 후천이 분리되고, 유심과 유물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람성자연사관이 천도교 계열 지식인의 문필 활동에서 제기되었으며, 차상찬도 역사서술 가운데 이러한 지향을 선보였다.

차상찬의 역사서술은 후천개벽운동이라는 목적 지향 가운데 조선의 과거 사실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동안 권력과 어용 역사가들에 의해 가려져 있던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목표 아래, 담론투쟁의 일환으로 역사를 썼다. 차상찬도 정확한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수용했지만, 역사서술은 현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한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 역사성이 동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인간 실천 중심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역사서술이 이어졌고, 여기에는 천도교 역사관에 반영된 선천 시기에 대한 이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상찬은 실천적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역사인식의 전파에도 힘을 쏟았다. 그러나 천도교 역사관을 배경으로 한 차상찬의 역사서술은 조선사의 체계를 잡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로 저항·반란에 관심을 가지고 과거를 재현했지만 각각의 인물의 활동과 사건은 결과적으로 역사서술 가운데 분절된 상태로 존재했다. 역사를 개별 인물과 사건의 형태로 소비하는 사화(史話)와 차상찬이 만나게 된 배경으로서 고민해볼 문제이다.

▮ 참고문헌

차상찬전집편집위원회 편, 『차상찬 전집』 4・5,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2021.
강원문화교육연구소 기획, 『차상찬 연구—일제강점기 문화운동의 선구자』,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20.
김기전, 『조선최근사십삼강』, 조선농민사, 1930.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김병제・이돈화 외, 임형진 해제, 『천도교의 정치이념—『천도교청우당론』・『당지』』,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5.
박길수, 『차상찬 평전』,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2.
강미정, 「『해동염사』의 내용과 특성」, 『한국어문교육』 34,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1.
김정인, 「천도교 계파의 동학사 인식—오지영의 『동학사』와 이돈화의 『천도교 창건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엄태웅, 「차상찬의 『통속조선사천년비사』 편찬의식 고찰」, 『고전과 해석』 35,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1.
정다연, 「『별건곤』 소재 차상찬 역사서술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9.
정용서, 「1930년대 천도교세력의 정치운동론과 시중회 참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정용서,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정현숙, 「개벽사와 차상찬—기획 특집과 매체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
최배은, 「차상찬의 '어린이 역사 이야기'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7,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홍동현, 「1900-1910년대 동학교단 세력의 '東學亂'에 대한 인식과 교단사 편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Abstract】

Cheondoist Cha Sang-chan's perception of history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articles in *Byeolgeongon*

Cho, Hyong-Yerl*

This article reviews Cha Sang-chan's historical narrative and historical awareness with focus on his identity as a Cheondoist. Historical articles written by Cha Sang-chan mainly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reformist figures who resisted the ruling power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is in line with the fact that Chondogyo-affiliated intellectuals mentioned Lee Jing-ok, Lee Gwal, Lim Gyeong-eop, and Hong Gyeong-rae as important, and highly evaluated 'Donghak' as a people's movement and reform movement while viewing the creation of Donghak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The important underlying goal of Cha Sang-chan's historical awareness was, first, the Great Opening of the Latter Heaven, which is the doctrine of Cheondogyo and the theory of political and cultural movements, and second, it emphasized the fact that history evolves through human practice. The above was meaningful as a practical historical awareness to open a new world, but historical narrative is limited in terms of value, and it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falter of historicity, which hardly considers historical changes and accumulation of capabilities in the Early Heaven period, a past that needs to be liquidated.

Keywords: Cha Sang-chan, Cheondogyo, the Great Opening of the Latter Heaven, human practice-centered historical awareness, lessons for the present, falter of historicity.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8.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istory, Donga Univ.